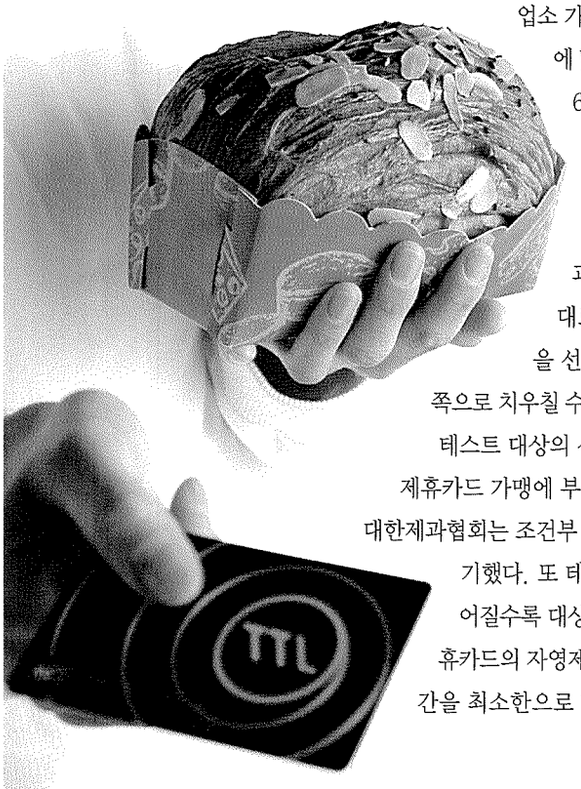
"자영제과점 제휴카드 서비스 멀지 않았다"

테스트 마케팅 개시로 제휴 초읽기

6월 말 전국 200여 개의 테스트 마케팅 대상업소에서 제휴카드 서비스가 동시에 오픈된다. 그동안 테스트 마케팅의 시행기간과 대상선정 등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면서 우려를 낳기도 했지만 (사)대한제과협회와 (주)큐앤에스는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결실을 맺어가고 있다. 글_정솔이 기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제휴카드 서비스가 본격적인 테스트 마케팅을 앞두고 초읽기에 들어갔다. 제휴카드 가맹 홍보과정에서 신청을 하면 바로 제휴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는 것처럼 잘못 알려지는 바람에 신청한 업소들로부터 '예상보다 늦어진다'는 문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카드 제휴는 사업체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생각처럼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실제로는 테스트 마케팅 기간을 대폭 줄이는 등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테스트 마케팅 대상 선정 등 세부적인 내용 또한 회원업소에 유리한 쪽으로 협의를 이끌어 내기도 했다.



당초 SK텔레콤의 제휴카드 관련 마케팅 담당업체 (주)큐앤에스는 간단한 실사작업을 통해 제휴를 신청한 모든 업소 가운데 SK텔레콤이 정한 제휴기준에 맞는 제과점을 우선적으로 선발해 6~8개월 동안 테스트 마케팅을 진행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선정하게 되면 규모가 크고 장사가 잘되는 제과점만을 대상으로 선정하거나 반대로 규모가 작고 영세한 제과점만을 선정하면 테스트 마케팅 결과가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어 우려가 됐다.

테스트 대상의 선별은 결과적으로 자영제과점의 제휴카드 가맹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사)대한제과협회는 조건부 선발에 강력하게 반대 입장을 제기했다. 또 테스트 마케팅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대상 선정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제휴카드의 자영제과점 적용이 늦어지게 되므로 기간을 최소한으로 단축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한 결과 실사 대상을 특별한 기준 없이 임의추출 형태로 바꾸고 기간은 당초 6~8개월로 얘기되던 것을 2개월로 최소화하기로 최종 결정 내렸다.

결정이 뒤바뀌면서 사업 추진에 가속도가 붙었다. (주)큐앤에스는 지난 4월 말 지역별로 고르게 나눠 200개의 테스트 마케팅 대상업체를 선정했다. 그러나 각 업체에 실제로 문의한 결과 제휴를 맺지 않겠다고 번복한 곳도 있고 SK텔레콤 제휴카드와 호환되지 않는 단말기를 사용하고 있는 제과점도 있어 일일이 확인절차를 거쳐 추가 대상자를 선정했다. 단말기 교체에 관한 논의는 비상대책위원회와 협의 당시 네트워크 구축비용을 전적으로 지원한다는 내용을 근거로 무상 교체를 요청한 상태다.

5월 말 현재 최종 합의된 200여 업체에 대해 제휴를 위한 네트워크 등을 실사하고 있으며 6월 20일까지 기반 작업이 마무리되면 테스트 마케팅 계약을 맺고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오픈할 계획이다. 테스트 마케팅에서는 주로 시스템의 문제점이나 돌발 상황을 미리 체크하게 되고 모든 신청업소로 확대 시행되면 이러한 문제가 계약 조건에 반영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서 관찰해야 한다.

한편 8월 중에 지회 · 지부를 통해 제휴 신청을 추가로 받는다. 8월 31일자로 2달 동안의 테스트 마케팅 기간이 끝나고 나면 내부적인 검토를 거쳐 가맹 계약서를 꾸리게 되고 모든 업체는 (주)큐앤에스와 개별적으로 제휴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에 돌입할 예정이다.

6월 말 경으로 예상되던 테스트 마케팅 시작일이 6월 20일로 확정돼 모든 신청업소에서 제휴카드 서비스를 시작할 날이 멀지 않았다. 테스트 마케팅 결과에 따라 계약 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협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대상 업체를 모니터링하고 회원업소에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다.

카드 제휴에 관한 궁금증 돋보기

모든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10%로 할인율을 내리고 자영제과점도 똑같이 제휴를 맺을 수 있다는 소식에 한 걸음에 달려가 신청서를 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제휴카드 할인 서비스를 시작하고 싶은 마음 때문일까요, 신청한 지가 벌써 3개월이나 됐는데 부정적인 소문만 무성하고 계속 기다리라고 하니 답답하기만 합니다.

제휴카드 할인서비스 언제부터?

흔히 '프로그램만 하나 설치하면 되는 것 아니냐' 또는 '제휴카드만 보여주고 10% 할인을 해주면 안 되느냐' 고 묻는 경우가 많은데 제휴카드 가맹을 맺는 일은 그리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일단 지난 3월부터 3차에 걸쳐 제휴 신청을 받아 (주)큐앤에스에 제출했고 4월 말 테스트 마케팅을 실시할 200개의 제과점을 선정했습니다. 선정한 업체와 개별적인 확인 작업을 통해 5월 중순까지 200여 업체를 최종 결정했고 6월 20일까지 가맹교육을 마치면 오는 8월 31일까지 테스트 마케팅을 진행하게 됩니다. 테스트 마케팅에 대한 분석을 모두 마친 다음 모든 신청 업소와 정식 계약에 들어갑니다.

테스트 마케팅, 왜 해야 하나?

테스트 마케팅은 제휴카드뿐 아니라 신제품을 출시하거나 또는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 테스트 지역을 정해서 시범적으로 실시해 제휴를 맺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을 미리 알아보기 위한 것이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자영제과점과 처음으로 제휴를 맺는 것이기 때문에 시스템 구축이나 운영 등에 대한 피드백(Feedback)을 통해 문제점이 있다면 사전에 수정 ·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테스트 마케팅을 통해 제과점에서는 질 좋은 서비스를 안심하고 제공할 수 있고 회사 측에서는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겠죠.

배보다 배꼽이 크다? 중도 해지 시 위약금

제휴카드 가맹 계약을 중도에 해지했을 경우에는 어마어마한 금액의 위약금을 물어야 된다는 소문은 사실과 다릅니다. 테스트 마케팅 대상으로 선정된 제과점이 중도에 해약을 한다면 테스트 마케팅 계약조건에 따라 위약금을 내게 되겠지만, 그 이후의 위약금에 관한 사항은 아직 정해진 내용이 없을 뿐 아니라 현재로서는 확대 시행 되더라도 중도 해약시 위약금은 물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테스트 마케팅 제과점 선정 기준은?

테스트 마케팅에 대해 처음 거론됐을 때만 해도 제휴를 희망하는 모든 업체에 대한 실사를 실시한 다음 테스트 마케팅을 실시한다고 밝혀 자칫 규모가 큰 제과점만 선정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사)대한제과협회는 반대 의사와 함께 테스트 마케팅 대상을 임의로 추출할 것을 강력히 제안했고 (주)큐엔에스가 이를 받아들여 지난 4월 말까지 지역별로 무작위로 추출하게 됐습니다. 당초 제과점 200곳을 선정했지만 실제로 확인한 결과 취소 의사를 밝힌 곳이 있어 일부 업체를 다시 선정하는 등 5월 둘째 주까지 선정 작업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카드 단말기에 따라 안될 수도 있다?

알려진 것처럼 일부 단말기의 경우 SK텔레콤의 제휴카드와 호환이 되지 않습니다. 뱅크포스, KMPS, 엔시벤, KOVAN, 나이스체크, KICC, KS체크 등 7개 업체의 단말기의 경우 호환이 가능하므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단말기 교체에 대해서는 서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최초 비상대책위원회와 SK텔레콤은 10% 할인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과점에서 부담하지만 네트워크 구축에 필요한 비용은 SK텔레콤 측에서 부담하겠다고 협의한 내용에 따라 계속적으로 단말기 무상 교체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빠른 서비스 적용을 위해 우선 테스트 마케팅 때는 호환되지 않는 단말기를 보유한 제과점은 제외됐습니다.

추가 신청 및 제휴는 언제부터?

올해 8월 중에 추가 신청을 받습니다. 제휴카드 할인 서비스를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할 때 신청한 모든 제과점에 대해 제휴 여부를 확인한 다음 개별적으로 계약에 들어갑니다. 추가 신청 기간이 결정되는 대로 지회 · 지부와 〈베이커리〉를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